

증시 사상 최고치… 경제 체질개선 땀 ‘코스피 5000’ 뚫는다

코스피 전망 ‘장밋빛’

양도소득세 대주주기준 ‘유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갈아치워

“배당소득세 25% 하향 조정땀
韓 증시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

“이쯤 되면 국장(국내 주식시장) 갈아 타는 게 지능순 아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11일)을 앞두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자, 개미들이 모인 A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는 환호성이 터졌다.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대로 자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릴까. 이재명 정부 주가의 향방에 대한 전문가 전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정부의 정책효과와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증시를 ‘부스트업’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도 시중에 풀린 돈이 갈 곳은 주식시장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인공지능(A)과 빅테크 경제 등 산업 구조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장밋빛 전망의 배경이다.

기대감과 시장 친화 정책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산업 체질 변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 증시 ‘부스트업’의 근본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Chat GPT가 생성한 이미지. 코스피 5000 도달에 투자자들이 환호하는 모습.

◆자사주 소각 등 이재명표 정책 자본 시장 새 서막

이날 코스피 상승을 이끈 것은 국내외서 들러온 호재다.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을 증시로 불러 모았다. 뉴욕증시가 미국 고용지표와 관련한 우려에도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점도 호재였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조건이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 50억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현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정부의 적

극적 개입과 정책적 지원이 보편화되는 추세”라면서 “한국 정부도 이런 추세에 발맞춘다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배당소득세 최대세율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것까지 논의된다면 본격적인 글로벌 대비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증시를 ‘부스트업’할 재료는 또 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예에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작업에도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8월 토론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주주 환원 정책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와세는 자본 총계를 낮출 유인이 있어 정책적 효과가 발휘된다면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시 장기 동력은 ‘경제 체질 개선’

문제는 불안한 경제다.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성장률이 0.7%로 잠정 집계됐다. 역성장은 탈출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도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평균 0.9%에서 1.0%로 상향했다. 한국 경제를 가장 비판적으로 봤던 JP모건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0.5%에서 6월 0.6%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0.7%로 또 높였다. 씨티은행도 4월 0.6%에서 지난달 0.9%로 올렸다. 골드만삭스 역시 5월 1.1%에서 8월 1.2%로 전망치를 높여 잡았다. 하지만, 장기화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내수 부진을 심화하고,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기업과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그나마 내년 한국경제에 햇살이 비출 것이라ں 소식이 위안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제외한 41개 기관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예상과 같은 1.8%였다. 한은의 전망치

(1.6%)보다 2%포인트 높았다.

예상과 현실은 다르다. 전문가들은 혁신 성장을 위해 반기업 정책 기조를 바꾸고 규제 걸림돌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에서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감각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 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이 지속해서 투자할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한국증시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시켜 안정적인 외국인 매수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이익이 제자리인데 주가만 오르길 기대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시장 자체가 매력 있어야 기업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자금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과 자산운용 시장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질적인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 조치도 있어야 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두나무, 블록체인 ‘기와’ 앞세워 글로벌 선점

오경석 대표 “스테이블코인 확산
블록체인 인프라 대중에 퍼질 것
두나무, 미래 금융 인프라 만들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한국적 상징을 담은 자체 블록체인 ‘기와(GIWA)’를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미래 금융 인프라를 한국에서 시작해 세계로 확장시키겠다는 ‘K-기업’의 포부다.

지난 9일 두나무는 ‘업비트 D 컨퍼런스(UDC)’를 통해 자체 블록체인 ‘기와체인(GIWA Chain)’과 ‘기와월렛(GIWA wallet)’을 공개했다. 기와체인은 이더리움 레이어2 블록체인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웹3(Web3)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레이어2는 이더리움의 보안성은 상속받으면서도, 거래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저렴하게 동작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두나무는 기와체인을 통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퍼지게 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인, 월렛과 같은 블록체인 인프라가 대중에 퍼질 것이고 이를 통해 지급결제, 자산관리, 자본시장 등 기존의 금융서비스가 웹3 기반의 서비스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돈이 아니라 신뢰를 설계하는 시대가 됐고, 두나무는 그 신뢰의 레이어 위에 미래의 금융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와’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미국, 싱가포르 등 ‘한국 밖 세상’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개발했다. 두나무는 “기와가 겹겹이 모여 단단히 지붕을 이루고, 수백년간 우리 선조를 안전하게 지켜왔듯, 블록체인상 겹겹이 쌓이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체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더 많은 국내 개발자들이

기와체인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창조하며 웹3 생태계에 진입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두나무는 꾸준한 한국적 상징을 강조해 왔다. 앞서 진행된 ‘시드볼트 NFT 컬렉션’ 시즌2에서도 핵심 주제로 국화(國華)인 무궁화를 선정하고, 환경재단과 함께 무궁화 보전지를 조성했다. 나아가 ‘무궁화’를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를 선보였다. 올해는 비인기 스포츠 자변 확대를 위해 태권도 ‘폼새’ 국가대표 후원에 나서면서 ‘토종기업’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두나무는 보유한 금융·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시대 육성에 기여하겠다는 기업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의 업(業)이 미래 세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미래운용, 월배당 ETF 투자법 교육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달부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정직한 TIGER ETF’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월배당 ETF 투자법을 소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월배당 ETF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운용사로서, 투자자들과 함께 월배당 ETF의 올바른 장기 투자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국내 월배당 ETF 시장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수요 증가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산 배당과 콕잡힌 매도 프리미엄을 동시에 활용해 높은 분배율을 제공하는 커버드콜 월배당 ETF가 주목받고 있다.

‘정직한 TIGER ETF’ 콘텐츠는 TIGER ETF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TIGER ETF 홈페이지 내 ‘ETF 인사이트’ 코너에서 ‘월분배 투자의 정석’ 시리즈를 연재 중이다. ‘ETF 분배금의 이해’, ‘해외 사례로 알아보는 커버드콜 ETF 분배율’ 등의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으며, ‘TIGER가 제시하는 적정 분배율’이 새롭게 업로드 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엔비디아·AMD 담은 ‘SOXL’ 압도적 순매수

해외주식 Click

주간 순매수액 3억3525만 달러
테슬라·TSLL 순매수 2위·3위

서학개미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종목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AI 거품론 이후 조정국면에 들어간 AI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특히 고위험·고수익 종목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테슬라가 개별종목과 ETF 형태로 인기를 끌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한주(9월 2일~9월 8일까지) 서학개미들은 SOXL(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약 3억3525만달러(약 4648억2400만원) 순매수에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다. SOXL은 ICE반도체지수 일일 변동률을 3배로 추종하는 고위험·고수익 상장지수펀드(ETF)로 엔비디아와 AMD 등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을 담고 있다.

또한 AI 인프라주인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룹 홀딩(약 4800만달러)에도 매수세가 몰리며 AI 중심의 구조적 성장 기대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AI 거품 발언 이후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와중에 반등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모양새다.

액티브 전기 케이블(AEC)과 광디지탈 신호 프로세서(DSP)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크레도는 최근 AI 핵심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4일 글로벌 투자은행



ChatGPT로 생성한 ‘서학개미가 AI 반도체 ETF와 테슬라에 집중하는 모습’.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크레도가 2026 회계연도 1분기(올해 2분기)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는 실적을 발표했다”며 크레도를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와 함께 AI 수혜 상위 4대 종목 중 하나로 선정했다. 소식 당일 크레도의 주가는 장중 12% 넘게 치솟았으며 상승세를 이어가 8일 사상 최고가(149.08달러)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테슬라와 테슬라의 일일 주가 변동률을 2배로 따라가는 TSL(DIREXION DAILY TSLA BULL 2X SHARES ETF)이 나란히 순매수 2위·3위를 차지했다. 지난 5일 테슬라 이사회는 일론 머스크 CEO에게 현재 1조 1000억달러 수준인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2035년까지 8조 5000억달러로 끌어올린다면 최대 1조달러 상당의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을 제안했다. 이러한 소식이 테슬라의 장기 성장 자신감을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됨에 따라 매수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건우 기자 geon@